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동굴관광자원의 관리체계에 대한 연구

홍충렬·김원진

경민대학 관광경영학과 교수·전국대학교 시간강사

I. 서론

자연동굴은 수많은 시간을 통해 생성된 생명체이고 특유의 신비로움으로 매우 중요한 자연유산이며 생태환경교육의 현장으로서 각광받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뿐만 아니라 지역홍보 수단으로서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어 동굴이 분포하고 있는 해당 지역주민과 지자체에서는 동굴의 관광개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강원도 삼척에서 세계 최초로 동굴엑스포(2002년 7월10일~8월10일)가 개최됨으로써 동굴에 대한 새로운 가치부여와 대대적인 관광홍보로 관광객들로 하여금 많은 관심을 고조시켰다.

그러나 무분별한 동굴의 관광개발과 관람객의 인식부족 등으로 대부분의 관광동굴의 경우 동굴내 외부의 환경파괴와 오염, 동굴생물의 생태변화 등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일부 관광동굴은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국자연환경조사 대상 중 자연동굴이 주요한 부문으로 인식되고 전국단위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할 때 기존의 관광동굴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보존 및 관리가 요구된다.

동굴 환경을 보존하는데 있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자연 상태의 동굴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나 현재와 같이 관광동굴로 개발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할 경우에는 동굴의 원형이 파괴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의 보존대책을 세워 영구히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동굴은 특성상 오랜 기간 지질학적 현상으로 형성된 자연산물이기 때문에 일단 훼손 및 파괴되면 원상 복원은 거의 불가능하기에 최소한의 파괴와 오염으로 최대의 개발 효과를 거두는 것도 자연보전의 한 면이라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이 대두되면서 관광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관광(Eco-Tourism) 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이 관광부문에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유는 환경의 질적인 면이 관광매력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인자라는 사실 때문이다. 특히 동굴과 같이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자연자원의 경우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개념 하에서 관리·보존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동굴과 같은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행해지는 관광은 자연관광을 의미한다. 그러나 비교적 훼손되지 않은 자연자원에 대한 궁극적 목표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동굴관광은 지속가능한 자연관광 즉, 생태관광의 하나로서 파악되어야 한다. 동굴관광을 생태관광의 하나로서 파악하고자 하는 이유는 생태관광은 보존, 교육, 관광객의 책임있는 행동, 지역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하기 때문이며 특히 부정적 관광영향의 최소화, 자연자원 및 지역문화의 존중, 지역의 보존 활동 지원, 지역사회에 편익 제공,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역의 참여, 관광객 및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 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김향자, 2002).

이러한 이유로 동굴에 대한 다양한 연구의 중요성 및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동굴에 대한 초기

의 연구는 주로 지질학적, 지형학적, 생물학적 측면에서의 개발타당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동굴전반의 환경변화와 그에 따른 환경보존 및 관리에 대한 연구(홍충렬, 1998; 우경식, 2001; James, 1999; Mavlyudov, 2001; Spate, 2001; 坪井 正, 2001)와 동굴에 대한 관광자원 가치적 측면에서의 연구로서 동굴지역의 교통 및 관광적 특성(홍현철 외, 1993; 유영준, 1998a, 1998b), 동굴관광정보(김원진, 1999), 동굴이미지 및 관광객 행태(홍충렬·김원진, 2001)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외에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동굴에의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오종우, 1993; 이희연·차승훈, 2004)가 있다.

동굴은 개방 즉 관광동굴로 개발되면 관광객의 동굴 내 행태와 동굴관리자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보존상태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관광객을 교육 및 안내하고 동굴내외부의 환경변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전반적인 동굴 관리 및 운영활동을 하는 동굴관리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의 동굴관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지금까지의 구체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관광동굴을 대상으로 관리실태 및 문제점과 동굴관리의 주요한 주체인 동굴관리자의 인식과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지속가능한 동굴관광을 위한 대안적인 관리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관광동굴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천연동굴 보존·관리지침”을 참고로 주요 행정적, 법적 내용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관광동굴에 대한 환경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2000년에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천연기념물 공개동굴 실태조사”를 토대로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12개 관광동굴을 대상으로 동굴관리 실태와 동굴관리자들의 동굴관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관광동굴의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관리실태에 대한 항목(안전진단, 종합학술조사, 관리장비 등)등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며 동굴관리에 대한 동굴관리자의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동굴관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근무년수, 업무내용, 학력, 거주지)과 동굴관리와 관련된 내용(공개목적에 대한 인식, 수시점검 및 안전진단 회수, 근무시 애로사항, 관광객에 바라는 점, 행정기관에 바라는 점)에 대하여 설문조사 하였다. 조사기간은 2001년 8월 25일부터 9월 22일까지이며 조사된 설문지는 SPSS/PC+ 10.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Ⅱ. 동굴의 이용가치 및 분포 특성

1. 동굴의 이용가치

2. 관광동굴 분포 특성

Ⅲ. 동굴의 관리실태 및 문제점

1.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
2. 동굴의 관리실태

Ⅳ. 동굴관리자에 대한 설문조사

1. 인구·사회학적 특성
2. 동굴관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
3. 대안적 관리체계

Ⅴ. 결 론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자연동굴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보존적인 면과 이용가치면, 특히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다. 앞으로의 관광형태는 대중관광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관광활동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생태관광이며 동굴은 이러한 생태관광의 주요한 부문으로서 각광받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다수의 관광동굴들이 관리 소홀, 관광객의 인식 부족, 행정당국의 정책 부재 등으로 심각한 환경 파괴와 오염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동굴관리자들의 동굴관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의미있는 것으로서 동굴관리자의 근무환경 개선, 관광객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동굴 관련법의 현실적인 법 개정, 동굴관리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지속가능한 동굴관광을 위해서는 행정기관, 동굴관리자, 관광객 등의 동굴관리 주체들이 상호 협력 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요구된다. 아울러 동굴내외부의 환경변화에 대한 방대한 자료관리와 실시간 분석 및 예측이 가능한 동굴관리정보시스템(cav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의 구축이 필요하다.

文 獻

- 김원진, 1999, "Internet을 이용한 동굴관광정보 분석", 한국동굴학회지, 59, 57~72.
문화재청, 2000a, 천연기념물 공개동굴 실태조사 및 보존대책 연구 보고서.

- 문화재청, 2000b,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
- 우경식, 2001, “국내 자연동굴의 현황과 관리 실태”, 제2회 자연유산보존 세미나 및 자연문화재 담당자 대회 발표자료집, 109~122.
- 김향자, 2002, “관광자원으로서 동굴자원과 관광교육”, 2002 삼척 세계동굴엑스포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36~247.
- 이희연·차승훈, 2004, “동굴 관광지의 지속가능성 지표 설정과 적용방안”, 관광학연구, 27(4), 331~352
- 오종우, 1994,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Karst 연구의 가능성“, 한국동굴학회지, 40, 13~29
- 유영준, 1998a, “경북지역 동굴의 관광적 특성”, 한국동굴학회지, 54, 9~20.
- 유영준, 1998b, “울진 성류굴의 관광적 특성”, 한국동굴학회지, 53, 15~24.
- 홍시환, 1990, 한국동굴대관, 삼주출판사.
- 홍충렬, 1998, “우리나라 관광석회동굴의 환경보전 연구”, 한국동굴학회지, 55, 33~44.
- 홍충렬, 2001, “미래지향적인 개방동굴 관리방안”, 제2회 자연유산보존 세미나 및 자연문화재 담당자 대회 발표자료집, 109~122.
- 홍충렬·김원진, 2001, “관광동굴에 대한 이미지 및 행태 특성”, 호텔관광연구, 7, 135~153.
- 홍현철·김일봉·유영준, 1993, “고수동굴의 교통 및 관광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동굴학회지, 33, 44~59.
- 坪井 正, 2001, “日本における天然記念物に指定された洞窟の利用と保全”, 第2回 自然遺産保存 SEMINAR と 自然文化財擔當者大會發表資料集, 韓國, 93~108.
- James, J. M., 1999, “Pro-Environmental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Show Cave : The Cases and Implications in Australia”, Proceeding of Samchok International Cave Symposium & Cave Festival, Korea, 1~21.
- Spate, A., 2001, “Strategies and Problems in the Management of Caves in Australia : are National Parks and National Monuments the Answer?”, Proceeding of 2th Seminar for Preservation of Natural Heritage, Korea, 31~76.
- Mavlyudov, B. R., 2001, “Institute of Geography Russian Academy of Sciences”, Proceeding of 2th Seminar for Preservation of Natural Heritage, Korea, 123~152.